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안인순(여, 1935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할망이 그 하르방은 몰리고 할망이 기 세니깐 하르방을 훑 던지난 지붕 우에 올라간 누게 오라네. 누게 누게 오란
“무사 지붕 우에 올라간디?”
허난
“호박 따러 왔젠.”
경 골아낫저 헛 말 들언.

- 핵심어 : 할망, 하르방, 지붕, 호박